



올해 내일이 만난 사람들은 26p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월간내일 연말결산

내일로 봉업

미래를 향한 과감한 용기

날마다 레벨업

2022년 디지털 트렌드 요점 정리



2022년의 마지막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돌아보면 햇빛 좋은 날도 있었고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이제 곧 소복소복 눈도 쌓이겠지요.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세상,
내일의 날씨를 선불리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이 차가울 때 든든한 온기를 전하는
국민 모두의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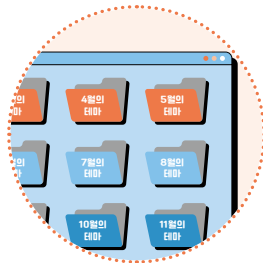
2023년 새로운 내일, 다시 만나요!

호랑이해에서 토끼해로 폴짝!
고용노동부와 함께 JUMP UP!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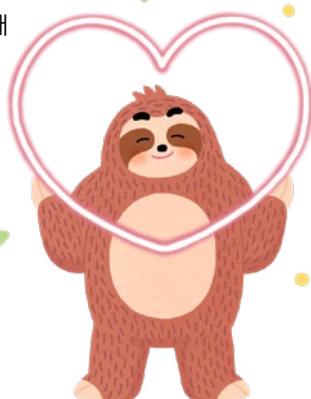
- 08 **톡톡톡**
숫자로 보는 2022년 고용노동정책
- 12 **트렌드 인사이드**
2022년 일자리 트렌드와
고용노동정책 모음.Zip
- 22 **알아두자고용**
언제든 찾아주세요!
국민을 위한 취업정보 플랫폼
- 26 **내일이 만난 사람**
2022년 내일이 만난 사람 어워드





Chapter 2 내일로 붙임!

- 34 뉴 스타트**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중년의 N잡러
- 서울시 뉴딜 일자리 매니저 한덕환
- 38 청년꿈터**
미래를 향한 진지한 고민과
과감한 용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진용
- 42 곳&곳 오피스**
젊은 혁신 바른 스타트업의 정석
- 이십사점오
- 46 더불어 세상**
“역사를 통해 오늘을 알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요!”
- 우리가 만드는 미래
-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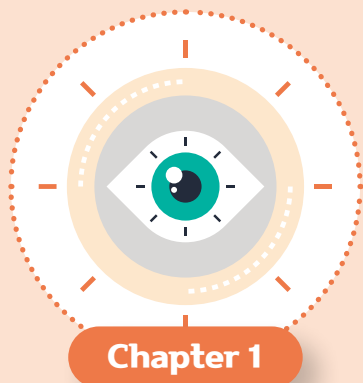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 66 JOB툰**
난나의 취준일기
- 68 디지털 휴먼**
2022년 디지털 트렌드
요점정리
- 70 주말에 뭐 할래?**
외출용 큐레이션+집콕용 큐레이션
- 74 직장생활백서**
호감을 전하는 말의 기술
- 76 채널 moel**
올해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콘텐츠 TOP3
- 78 그린 리추얼**
마이너스 플러스 1 챌린지
- 80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71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트레드 캐치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2022년 월간내일 연말결산!

올해 <월간내일>은

국민 가까이 더욱 다가가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한 1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숫자로 보는 2022년 고용노동정책



벌써 12월이네요!
올해 고용노동 통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취업자

15세 이상

실업자

2,841.8만 명

(+67.7만 명)

69.2만 명

(-9.5만 명)

15~29세

취업자 **394.8만 명**
(+2.1만 명)

실업자 **23.6만 명**
(-0.2만 명)



30~64세

취업자 **2,096.4만 명**
(+38.6만 명)

실업자 **41.8만 명**
(-8.3만 명)



여성(15~64세)

취업자 **1,235.0만 명**
(+33.9만 명)

실업자 **29.8만 명**
(-3.3만 명)



고용률

15~64세

실업률

68.9%
(+1.6%)

2.4%
(-0.4%)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

	2021년 10월	2022년 10월
15세 이상 인구	45,148 (+296)	45,302 (+154)
경제활동인구	28,528 (+412)	29,110 (+582)
비경제활동인구	16,620 (-116)	16,192 (-428)
취업자	27,741 (+652)	28,418 (+677)
실업자	788 (-241)	692 (-95)
경제활동참가율	63.2 (+0.5)	64.3 (+1.1)
고용률	67.3 (+1.4)	68.9 (+1.6)
실업률	2.8 (-0.9)	2.4 (-0.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0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총 취업자는 2,841만 8,000여 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67만여 명이 증가했고
실업자는 9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2만여 명이 늘었고요,
중장년 및 여성 취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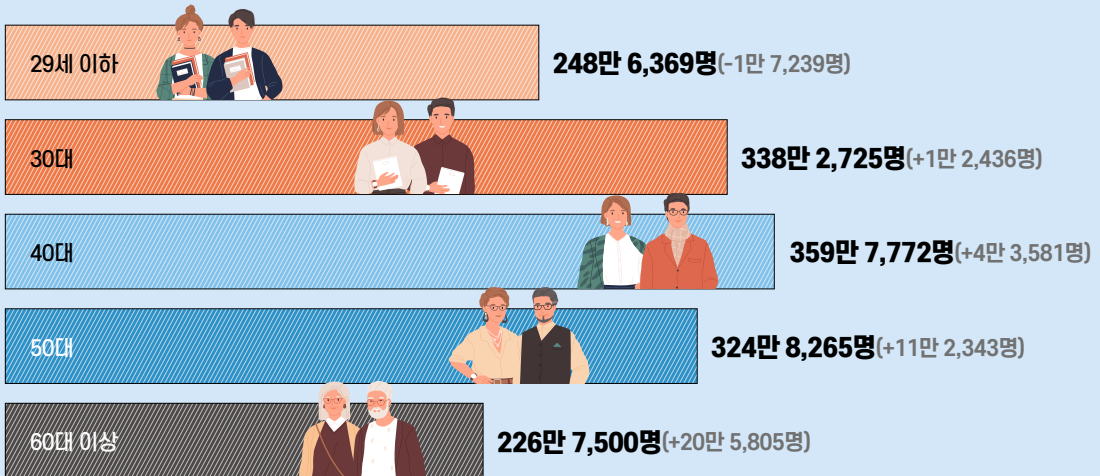


고용보험 가입자 수

1,498만 2,632명

(+35만 6,927명)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현황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2년 10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등이 늘어난 것을 보면
비교적 빠르게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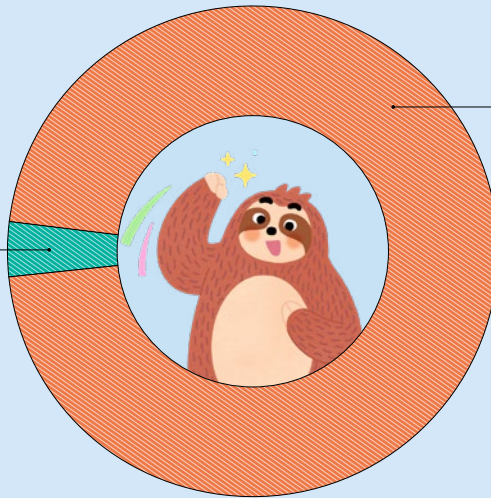
구직급여 등 지급액

8,537억 1,668만 원
(-661억 5,998만 원)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등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 등 지급액
322억 6,498만 원
(+13억 9,625만 원)



구직급여 지급액
8,203억 3,263만 원
(-675억 6,883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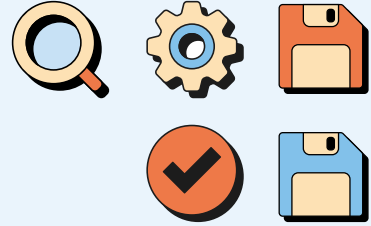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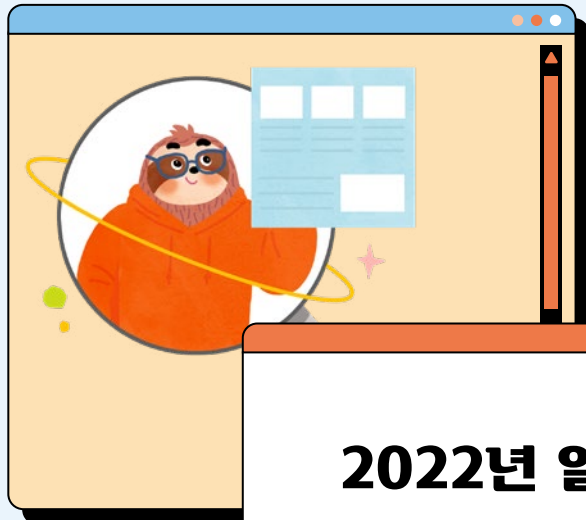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2년 10월 기준



3년에 걸친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고용동향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고용노동부는
국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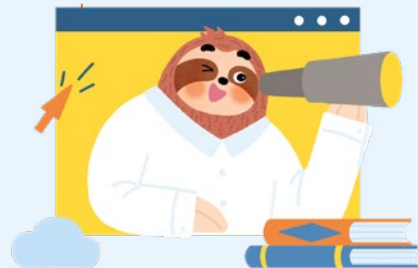


2022년 일자리 트렌드와 고용노동정책 모음.Zip

2022년 <월간내일>은 우리 일상 속 일자리 트렌드를 알아보고
관련해서 어떤 고용노동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월간내일 지난호 보기



<월간내일>은 지난 3월, 올해의 채용 트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전에는 공개 채용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수시 채용이 대세입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행했던 비대면 면접이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등 채용시장에도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에게도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는 중요한 업무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 시 '스펙'보다는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ESG 경영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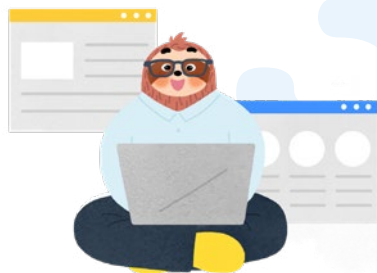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청년과 기업을 함께 응원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채용시장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등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혹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즉시배송 서비스인 퀵커머스는 이제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퀵커머스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더욱 빠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퀵커머스 시장이 부쩍 커지면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들, 즉 배달 라이더, 퀵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새롭게 생겨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노무

제공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종)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플랫폼종사자(2개 직종)까지 총 1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당신도 N잡러인가요?

여러 일을 동시에 병행하는 'N잡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첫째로, 고용의 트렌드가 '직무 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꼭 조직에 소속되지 않아도 '능력'만 있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지요. '일'에 대한 관점 변화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이 아니라 '직업'으로 '나'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 일하느냐'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N잡러도 고용보험 혜택 가능!

N잡러라면 보통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일들을 병행하지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쓰고, 고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특수고용종사자 직종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직업으로 삼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을 받아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훈련비의 최소 45%에서 최대 85%까지 지원된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HRD-NET(www.hrd.go.kr)



메타버스와 일자리



어느새 우리 일상 속에 성큼 들어와버린 메타버스. 게임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점점 더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인 만큼 일자리 시장의 변화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방식의 변화는 물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건축가 등 새로운 직종이 다채롭게 생겨나며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디지털과 친해질 수 있도록!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메타버스 세상에 대비하려면 우선 디지털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가 생소한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2021년부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프로그래밍 과정부터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3D 디자인 등 최근 관심 받고 있는 과정까지 다양하게 개설돼 있습니다.

실무 기술을 배우는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 달리 ‘K-디지털 트레이닝’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 현장에서 실제 직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디지털 분야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푸는 현장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7~8시간씩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HRD-NET(www.hrd.go.kr)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전에는 조금 낯설던 업무방식 ‘리모트워크(Remote Work)’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재택근무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시간을 단축했을 뿐! 리모트워크는 디지털 시대가 가져오는 당연한 변화이자 흐름이랍니다. 리모트워크는 유연근무, 재택근무, 출장 및 외근, 거점오피스(공유오피스) 근무, 가상오피스(메타버스) 근무, 위케이션 등 그 형태가 다채롭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리모트워크 방식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제 예산 대폭 확충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지원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여 전년대비 지원인원이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도 95% 이상 집행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내실있는 지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자녀돌봄에 기여하였고,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택트(Untact)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의 체계적인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재택근무 도입 및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혁신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문화, 재택근무 활용 현황 등 정량, 정성 지표로 구성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2),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특히 만 15~39세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3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깨닫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장기근속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으로 청년 본인은 2년 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2년 간 600만 원을 적립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할 경우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을 포기하지 말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진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기 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그 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입니다. 각 지자체의 구직단념 청년 모집 후 1:1 밀착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월간내일>은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점점 디지털화되어 가면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더 멋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비영리 단체, 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신중년 및 기업에게 모두 혜택!****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급).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10월의
테마

내일을 위한 자기개발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자기개발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전직 또는 취직을 준비하는 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국민이 변화의 흐름에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지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중소기업 훈련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은 공동훈련센터와 대·중소기업 간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 구축된 훈련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협약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 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훈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주라면 누구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주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고3에게!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선정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자존감을 유지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취업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 경력보유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 취업 밀착케어 및 취업 지원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요!



취업을 꿈꾸는 모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

든든한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해 마련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 도입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급여를 제공합니다.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촉진 및 자립 지원

저소득자, 실직자 및 일반 구직자를 지원하며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활용해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채용박람회,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언제든 찾아주세요! 국민을 위한 취업정보 플랫폼

고용노동부 및 정부기관, 각 지자체는 국민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HRD-Net

워크넷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플랫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플랫폼입니다.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구인정보 외에도 직업·진로 관련 정보, 정부지원 일자리, 강소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워크넷은 필수입니다.

 www.work.go.kr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은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정보와 무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능력 지식포털입니다. 구직자·재직근로자·기업 등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HRD-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관련 교육들을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hrd.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워크투게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의 새 일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aeil.mogef.go.kr

워크투게더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꿈꿔요

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 지사에서는 구직장애인에게 개별 능력에 따른 적합 사업체를 알선해주고, 취업 후 원만한 직장 생활적응 및 경력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즉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직업훈련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구직구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포털 워크투게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worktogether.or.kr



온라인청년센터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들, 여기로 모여세요!

온라인청년센터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등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유형과 지역을 설정해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전국 청년공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준비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청년센터가 있다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센터입니다. 각 지역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고,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진로·취업에 관한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 2년 이내의 청년 및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니 구직 청년이라면 온라인청년센터 사이트에서 가까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보세요.



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장년워크넷

희망찬 인생 2막을 함께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퇴직예정 중장년을 위한 전직스쿨프로그램,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도약프로그램 등 중장년 일자리를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www.work.go.kr/senior

서울시50플러스포털

50세 이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50플러스포털은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노후준비를 할 때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야말로 50세 이상 시니어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일자리 정보는 물론, 종합 상담 및 교육 등도 가능하며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www.50plus.or.kr

#중장년워크넷
#서울시50플러스포털

2022년 내일이 만난 사람 어워드

올해 어떤 분들이 <월간내일>을 빛내주었을까요?
2022년 내일이 만난 사람 어워드를 지금 시작합니다!



▲ 월간내일 지난해 보기

틀을 한번 깨어보상



1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안쪽인간> 작가 장보름

2022년의 문을 장보름 작가가 열어주었습니다.
장보름 작가는 2021년 <월간내일>의 잡툰
'안쪽인간'을 연재한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장 작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딘가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을 때 '안쪽인간'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의 부캐이자
본캐인 안쪽인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기존의 틀을 깨고 나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힘든 시기일수록 움츠리지 말고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장보름 작가님!
덕분에 방향만 살짝 바꾸면 안쪽이 곧 바깥쪽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고용노동부 인스타그램에서 안쪽인간 보기





상담도 잘해 깜놀했상

2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댄서 효진초이

2월에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효진초이를 만나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위한 고민상담소를 열어보았습니다. 효진초이는 <월간내일> 독자들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오래 알아온 친구처럼 친근하게 해결책을 내려줬는데요. ‘좋은 리더는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우파’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후 여전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효진초이! 참만 잘 추는 줄 알았더니 상담도 잘해 깜놀했상~~~ 주옥 같은 이야기들 가슴에 꼭 새길게요!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효진초이 고민상담소 영상보기



덕분에 트렌드 알았상

3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커리어코치 및 채용전문가 윤영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채용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간내일>이 커리어코치이자 채용전문가인 윤영돈 코치를 만나 2022년의 채용 트렌드를 짚어보았지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트렌드란 것이 칼로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삶에 녹아들면서 연결되고 심화되는 부분이 많으니, 다가오는 2023년 채용 트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 2022년의 내용부터 체크해보세요. 누구보다 날카롭고 정확하게 채용 트렌드를 분석한 윤영돈 코치에게 ‘덕분에 트렌드 알았상’을 수여합니다.





코로나의 영웅이상 + 안전운전 꼭 해주상

4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배달 라이더 조정수·김규남

지금 우리나라 퀵커머스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선두에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터널을 우리가 무사히 견뎌낼 수 있었던 데는 함께 해주신 배달 라이더들의 역할이 정말 컸지요!
그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배달 라이더 및 플랫폼종사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지난 4월에 배달 라이더 조정수, 김규남 님을 만나 현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답니다.
조정수, 김규남 님! 당신들이 바로 코로나의 영웅이상! 안전운전 꼭 해주상!



플레이리스트가 감동이었상

5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가수 하림

가요계 대표 N잡러로 통하는 가수 하림 씨.
본업인 가수 외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음반 프로듀싱도 하고, 문화 관련 기획도 하는 등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N잡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N잡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도 추천해주셨지요.
하림 씨가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준 '플레이리스트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만나보세요!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하림의 플레이리스트 듣기





메타버스와 친해져보상

6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기자 이경태

아직도 알 듯 말 듯 알쏭달쏭한 메타버스, 너란 존재!
앞으로 무궁무진한 변화를 안겨줄 메타버스는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6월에는 <메타버스 N잡&창업>의 저자인 이경태
기자를 만나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보았습니다.
메타버스! 하루아침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찬찬히 알아가다 보면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경태 기자와 함께 메타버스와
친해져보상!



리모트워크 맛집상 + 워케이션 나도 가고싶상

7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티몬 직원 김시은·김민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7월에는 리모트워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워케이션(Workation)’을 다녀온
티몬 직원 김시은·김민규 님을 만나보고
회사의 다양한 리모트워크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행복하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업무효율도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은·김민규 님! <월간내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리모트워크로
일잘러되었상’도 수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터뷰 안 본 대학생 없게 해주상

8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대학생 류서진·유서현

캠퍼스의 낭만을 느끼기도 전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학생들이 정말 많죠.
네, 대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취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8월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 류서진·유서현 님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실전 팁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부디! 이 인터뷰 안 본 대학생 없게 해주상~



내 나이가 어때상



9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시니어벤처협회 수석부회장 홍재기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시는 중장년들이 많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덩달아 일해야 하는 시간도
길어지는데 세상은 또 너무 빠르게 바뀌니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지요.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9월에는
시니어벤처협회 홍재기 수석부회장을 만나 중장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재기 수석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졌상



10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고교위탁 교육 이수자 이서령·정우담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위한 직무기술중심의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업무역량을 찬찬히 키워 노동시장에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지요. 10월에는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서 고교위탁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연착륙한 스무 살 청년, 이서령·정우담 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고 멋진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내일은 여전히 밝고 희망찬 것 같아요!



국민 취업의 디딤돌이 되어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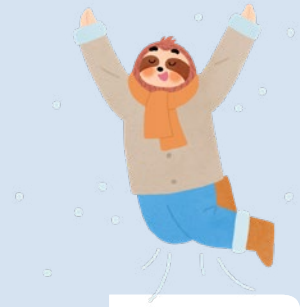
11월에 내일이 만난 사람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주무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보자고요. 함께 길고 긴 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11월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일자리를 위한 여러 제도와 연구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주무현 선임연구위원님!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연구로 국민 취업의 디딤돌이 되어주상~





Chapter 2



내 일로

분



업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낮선 세상, 따뜻한 공존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뷰카 시대(VUCA)라고 말합니다.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함(Ambiguity),
이 네 단어의 앞머리를 따서 만든 말이지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은 분명 따뜻할 거니까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중년의 N잡러

서울시 뉴딜 일자리 매니저 한덕환

은퇴 후 쏟아지는 막막함에도 도전을 거듭한 한덕환 씨.
최근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써 왔던
‘일과 인생’이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고 글쓰기를 하려면
청년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직업에 도전하자는
생각이 이어지더군요.”

30년의 회사 생활을 끝내고

아내, 두 딸과 함께 가정을 꾸려온 한덕환 씨는 공기업에서 신입사원부터 부장까지 거친 후 15년 만에 창업의 꿈을 안고 첫 번째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했지만 15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서서히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정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연구개발 회사의 경영자로서 부족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상황이 쉽지 않아지며 마음도 지쳐갔기 때문이죠. 결국 동업자에게 회사를 맡긴 후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를 두고 한덕환 씨는 자신이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끝내고 은퇴 후 한덕환 씨는 1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자문을 제공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곧 관두고 가장 좋아하는 일인 글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은퇴 직전 시작했던 글쓰기는 ‘은퇴 후엔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다짐한 혼자만의 약속 같은 것이었어요. 글쓰기를 워낙 좋아해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소재가 고갈돼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동안 써 왔던 ‘일과 인생’이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고 글쓰기를 하려면 청년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직업에 도전하자는 생각이 이어지더군요.”

한덕환 씨는 이후 1년간 청년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재취업 지원서를 냈지만, 반응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수십 통의 지원서 중 단 두 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마저도 불합격이었습니다. 일 년간의 재취업 도전이 실패로 끝난 것이죠. 하지만 한덕환 씨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쫓았습니다.

“재취업의 실패로 인한 우울을 견뎌내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 ‘유튜브 크리에



Tip.

“부캐를 찾으세요”

준비 없이 맞는 인생 2막이 얼마나 막막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좋아하는 일부터 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수익화로 발전할 수 있고 결과물을 축적하다 보면 새로운 가치로 진화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시작하고 지속하는 데 ‘비용 부담이 적은 것’, ‘나와 무관하거나 나이가 들면 더 어울리는 것’,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딸들의 도움까지 받아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찾아보니 ‘서울시50플러스센터’에서 유튜브 제작 과정교육이 있더라고요.”

한덕환 씨는 2020년 초 마포에 있는 ‘서울시50플러스센터 중부캠퍼스’에서 개설한 ‘유튜브 제작을 위한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을 동시에 신청하고, 두 달간 병행 수강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유튜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고, 유튜브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재취업을 향한 끝없는 도전

“재취업 도전에서 연전연패하여 시무룩한 저를 보고 있던 딸들이 얘기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아빠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고민을 함께하는 곳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추천한 ‘서울시50플러스센터’는 저에게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튜브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해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진 이어가고 있죠.”

이처럼 인생 2막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한덕환 씨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서울시50플러스센터의 게시물을 통해 ‘굿잡5060’의 신중년 역량강화 과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났은 ‘신중년 역량 재충전 코스’는 한덕환 씨에게 또 다른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을 밟으며 한덕환 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재취업 준비생으로 변모했습니다.

“준비하고 나니 그제야 재취업시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군요. 두 달간의 교육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교육훈련이 금과옥조이자 실전 레슨이었습니다. ‘굿잡5060’의 교육과정을 끝내고 다시 시도한 도전은 준비 없이 시작했던 그전 1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중년의 재취업에도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2021년 4월, 불과 한 달 동안 한덕환 씨에게 여섯 번의 면접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후 여섯 번째 면접에서 합격 소식을 받은 한덕환 씨는 본격적인 인생 2막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서울시 뉴딜일자리 매니저’로서 수행하고 있는 구청의 ‘청년 일자리 멘토’ 일입니다. 결국 한덕환 씨는 ‘글을 쓰기 위해 청년을 만나겠다’는 무모하지만 당당했던 그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인생 1막의 30년과는 전혀 다른 조직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조직생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며 한덕환 씨는 그렇게 고대하던 글감들을 다채롭게 접했고, 30여 편에서 멈췄던 그의 브런치 작품은 90편이 넘었습니다.

“인생 2막은 1막처럼
하나의 제대로 된 직장이나
직업만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을 하는 중년

한덕환 씨는 2023년엔 종이책을 출간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브런치에 쌓아온 글을 모아 한 권으로 묶어볼 생각입니다. 책을 출간한 뒤엔 글로 기록한 그의 인생을 바탕으로 강연을 다니고 싶습니다. 인생 2막을 앞두고 막막해하는 신중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고민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강연자가 되어 지방을 다니며 신중년들을 만나고, 한편으론 지역의 좋은 곳을 영상에 담아 유튜브 작품으로도 올릴 계획입니다.

한덕환 씨는 이제 중장년이 되면 같은 일을 같은 수준으로 성과를 내더라도 사회는 같은 성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 2막은 1막처럼 하나의 제대로 된 직장이나 직업만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대신 크기가 작더라도 여러 개를 모아보면 어떨까요? 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채로워서 지루하지도 않으며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대신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 다양한 스토리를 기억 주머니 속 이곳저곳에 담아 놓았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많은 것을 오랫동안 담아놓다 보니 어디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주는 지혜는 결코 사라지거나 늙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나의 N잡으로 삼아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즐거운 인생 2막을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처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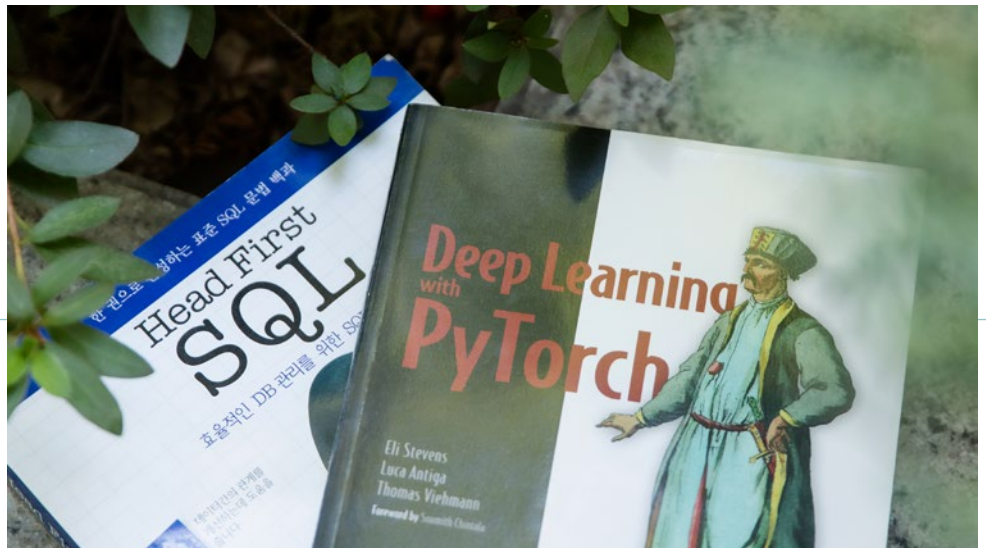
미래를 향한 진지한 고민과 과감한 용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진용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길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김진용 씨는
과감하게 자신의 길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변화의 가운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었습니다.



갈고 닦았던 전공자에서 비전공자의 길로

김진용 씨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취업 걱정이 적다”는 이유로 추천해 준 기계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보니, 기계공학의 기본인 4대 역학이 자신의 흥미를 크게 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용 씨는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더욱 잘하게 되면 흥미가 생길 거라고 믿고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4학년이 될 때까지 학점 4점대를 유지했고 블로그엔 공부했던 전공 내용을 80개 이상 포스팅하며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용 씨는 ‘전공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 2학기부터 AI와 기계공학을 결합해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진용 씨는 연구실에서 자연스럽게 프로그

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몇 줄의 코드를 작동시키면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파이썬이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협업하던 석사 선배가 만들어낸 AI 모델이 그렇게 신기해 보일 수 없었어요. 단 몇 줄의 알고리즘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래밍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진용 씨는 AI 분야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다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레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느덧 4학년 2학기, 취업할 나이가 되어 진용 씨에게도 ‘취준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무렵, 진용 씨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흥미 없는 분야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4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내려놓기



에는 아깝지 않을까? 동시에 시라는 분야는 나에게 맞는 분야일까? 하는 고민을 수없이 했어요. 결국 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 보다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새 공부를 시작하는 고난 그리고 행복

진용 씨는 HRD-NET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교육과정 2개를 골랐습니다. 디지털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정책에 눈길이 갔습니다. 마침 진용 씨가 원하는 교육과정 2개의 시기가 잘 맞아 모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시험과 자소서, 코딩테스트 등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였고, 교육과정 합격을 위해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튜브에 딥러닝 강의가 인공지능 기초를 다지기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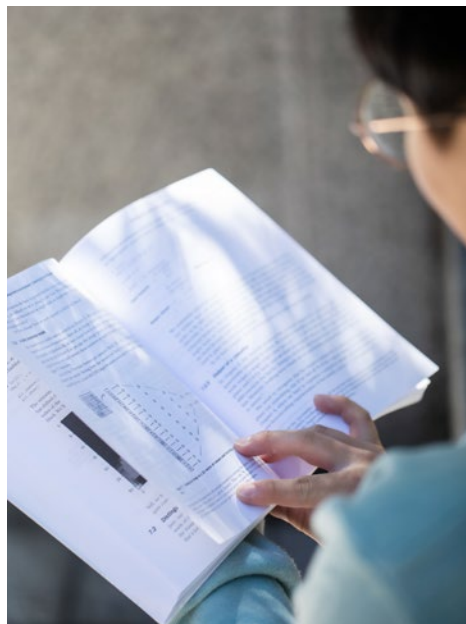
아서 두 번씩 돌려봤고, 이후에는 부스트 캠프에서 제공해주는 프리코스 강의를 꼭 들으면서 이론을 숙지했어요. 인공지능 관련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코딩테스트 쪽에서 애를 먹기도 했죠. 온라인 사이트에서 꾸준히 문제를 풀며 경험을 쌓았어요.”

노력 끝에 2개 모두 합격한 진용 씨는 그중 더 원했던 교육과정을 선택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설명된 커리큘럼이 훨씬 훌륭해 보였기 때문이죠. AI 개발의 전체 사이클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AI를 기초부터 탄탄히 쌓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보였습니다. AI를 잘 모르는 진용 씨도 한번쯤 들어봤던 유명한 강사들이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혹독하지만 개발자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5개월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진용 씨는 이때를 두고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모두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 난도가 올라가고 밤낮 구분 없이

몰입해야 했던 만큼 체력적 한계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몰입하면서 학습하니까 학습량이 많아져서 밤을 새우게 되더라고요. 딥러닝 기초부터 컴퓨터 비전 최신 논문, 모델 경량화, 데이터 수집, 서비스 배포 등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을 몸소 익힐 수 있었어요. 하루 동안 들었던 강의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과제를 풀고 있고, GPU(그래픽 처리장치, Graphic Processing Unit) 서버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내부 경진대회 참여하랴, 토론 게시판에 다른 분들이 공유하신 좋은 글을 읽다 보면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누군가 지난해의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준 디딤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받으며 진용 씨는 힘들 때 힘이 돼준 소중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코드 공유, 아이디어 공유 등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공유 문화가 활성화된 덕도 컸습니다. 한번은 토론 게시판에 대회 관련해서 진용 씨의 인사이트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동료 중 한 명이 진용 씨의 글에서 영감을 얻어 더 좋은 코드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자칫 본인의 아이디어를 뺏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끈끈한 동료들은 공유를 통해 풍성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점점 자신감을 회복한 진용 씨는 취업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교육생들이 초청된 기업 관계자 앞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업 네트워킹 데이는 교육 과정 막바지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용 씨는 한 기업과 컨택했고,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돼 지금까지 AI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채용 부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인사담당자님께서 다가와 말씀을 걸어주셨어요. 제 이력서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총 세 번의 면접을 보고 합격하게 됐어요.”

진용 씨는 이 모든 과정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데 거부감이 없어졌고, 더 나아가서 소통하는 방법, 공유의 중요성 인지 등 개발자로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전공을 바꿔도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준 디딤돌이에요. 누군가 지난해의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혁신 바른 스타트업의 정석

이십사점오



이달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커리어 관리 플랫폼
'속삭'을 탄생시킨 젊은 기업,
주식회사 이십사점오를 찾아가봅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주)이십사점오는 전 직원의 80%가 20대인 젊은 기업입니다. 2019년에 회사를 시작한 김신우 대표는 서른 살의 젊은 나이에도 확고한 시스템과 자기 성찰, 그리고 발전을 통해 회사를 착실히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쉽고 빠르게

공모전, 대외활동, 강연이나 교육,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등 대학생을 위한 커리어 정보는 연간 2만여 개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따로따로 찾아봐야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대학생 맞춤 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 ‘속삭’이 시작됐습니다. 김신우 대표는 대학생이 각자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쓰는 시간인 하루 평균 34.6분*의 시간을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이십사점오’라는 회사명에는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24.5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대학생들이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시간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

는 의지를 담았죠. 이런 이유로 ‘속삭’은 대학생이 공고를 탐색하기 위해 소비하는 34.6분의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가 되고 싶었어요.”

‘속삭’은 대학생 1학년부터 취업 전까지의 과정에서 개인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커리어 패스 및 취업정보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하여 대학생 개개인에게 커리어 패스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저장한 일정들을 캘린더 형식으로 기록해 관리할 수 있고, 모집공고 마감 알림 설정을 통해 지원 날짜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도 있죠. 또 모집공고 지원 결정 시 대외활동, 동아리, 인턴에 대한 후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신우 대표는 이십사점오의 사명에 맞게 정보탐색 시간을 1분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7만 명의 유저를 확보해 400만 건의 개인화 데이터를 수집, 맞춤정보 큐레이션 기술을 탑재한 ‘속삭’은 출시 1년 8개월 만에 대학생 회원 10만 명을 확보하고,

*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정보 검색에 사용하는 시간은 일 평균 ‘34.6분’이라고 합니다.



“독단적인 선택과 주장보다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분기별로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MAU(Monthly Active Users, 월간 서비스 이용자 수) 18,000 및 앱스토어 생산성 부문 42위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김신우 대표는 연세대 학생 시절부터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휴학 후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 창업 사관학교 수업을 들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낸 뒤 첫 번째 창업을 대학교 내 개인 카페 종이컵 홀더 뒷면을 활용한 광고 매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직접 광고제안서를 돌려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근무혁신기업으로 선정

지금 이십사점오의 직원은 열두 명입니다. 김신우 대표는 1인 사업과 공동 창업

을 거쳐, 해커톤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개발 후 2019년 이십사점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동안 1인 혹은 공동 창업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을 뿐, 열명이 넘는 직원들을 꾸려 본 것은 처음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 수 있지만 이십사점오는 2021년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선 이십사점오는 철저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코어 근무 시간만 지키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일간 유연근무제 뿐만 아니라 주간 유연근무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요일별로 근무 시간을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케이션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자 직원 한 분이 양양으로 5일간 위케이션을 다녀오셨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셔서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위케이션 제도를 고민 중인데요, 무엇보다 업무 형태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20대가 8명, 30대가 4명입니다.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근무 형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 내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믿고 회사를 운영하죠.”

김신우 대표는 회사의 모든 규칙과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때, 생산성이 향상되는지와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또는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독단적인 선택과 주장보다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분기별로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직원이 회사에, 회사가 직원에게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연간 평가보다 분기별 다면 평가는 직원끼리 더 활발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익명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서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회차를 거듭해갈수록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거나,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들을 최대한 맞춰 가려 노력 중입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그런 뜻에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과감한 활보를 통한 시장 점유

이십사점오는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김신우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직원들이 자기계발비를 좀 더 썼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죠. 각종 도서와 강의를 통한 자기계발이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십사점오의 자기계발 비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십사점오는 인턴까지 4대 보험을 적용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직원도 애사심을 가지고 일할길 원하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스타트업 이십사점오는 거침없는 활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유저별 대외 활동 참여율을 증대하고 광고와 유저 매칭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속삭’은 올 초 1.5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 유치 외에도 프리 A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신우 대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하는 회사인 만큼 저도 두 명의 팀 리더와 함께 리더십 교육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전할수록 저 역시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요. 최근엔 신입사원들의 빠른 채용을 실현하는 ‘슈퍼 패스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이내로 매칭을 완료하고 면접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젊은 회사이지만, 근무 혁신 기업으로 손꼽힌 만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알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처음 만들어져 2006년부터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온 ‘우리가 만드는 미래’의
이현정 대표를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사기행·문화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태동

문화체험 콘텐츠 사회적기업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2004년, 전신인 ‘사단법인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로 시작했습니다. 국내 사회적기업의 태동기였던 당시, 사단법인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는 여성부의 인적자원 활용 기반 구축사업으로 지정돼 서울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직개발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6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역사문화체험 사업단’으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습니다. 여성 미래 1호 사업단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 ‘역사문화체험 사업단’으로 시작한 만큼,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드는 미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회사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여성입니다. 처음 시작이 그랬던 만큼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요.”

창립 이후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전문 역사 강사’로 여성을 고용해 박물관, 미술관, 사적지 등에서 관광객에게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고 안내하

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 기행과 실내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 교실, 그리고 중국, 캄보디아 등지로 떠나는 외국 기행과 개별 참가 기행 등 유적지를 찾아 역사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2007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던 당시엔 전체 직원이 70여 명이었고 그중 55명이 역사 강사였어요. 전체 직원의 95% 이상이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모두 정규직이었어요. 당시엔 일자리 사업단이나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활발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업단 초기부터 자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1년 6개월만에 주식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이전 대표님의 결정이었죠.”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해안

1대 대표였던 김인선 대표는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태동기였던 그 시절, 지원은 풍성한 편이었지만 언젠가 지원이 끊기면 회사는 문을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초등학교



교 3학년부터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교구를 개발하고 성인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대안 여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발 빠르게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질 좋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자립을 도모했습니다. 인건비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은, 내부의 노력 없이는 기업의 생명이 단기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표님께서 사회적기업이 지원에만 기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요. 사회적기업이지만 영리를 창출해야 기업이 존재할 수 있었기에, 최대한 빠르게 경제적 자립

을 준비했죠. 당시엔 조금 힘들었지만,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드는 미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직원은 반 이상줄었지만, 그때 계셨던 직원분들이 아직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사회적기업이야말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모범

그렇게 본격적인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박물관 체험 학습을 비롯해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소외계층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아동센터 역사문화교실을 지원하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체험 프로

“사회적기업이지만 영리를 창출해야 기업이 존재할 수 있었기에, 최대한 빠르게 경제적 자립을 준비했죠.”





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이후 삼성꿈장학재단, 사무금융노조, 지하철노조 등과 손잡고 역사문화교실을 지원, 문화재청과 손잡고 상생문화재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지역아동센터 ‘참재밋는 역사 공부’와 대한항공 양천구 소음피해지역 지역아동센터 ‘재밋다!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차그룹 지역아동센터 ‘만들고 놀며 배우는 우리 역사’를 비롯해 문화재청, 서울시, 마포구, 서대문형무소 등과 함께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대상별로 맞춤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또 이를 통해 체험 교구와 교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국내나 해외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며 지자체, 기관들과 연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소외 계층에게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소외계층의 문화 체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진행했던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문화재청 ‘동행, 문화유산’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이현정 대표는 80세가 훌쩍 넘는 청각장애를 앓으신 어르신들이 수어로 전달하는 한양도성에 얹힌 옛이야기에 집중하고 평생 처음으로 문화유산에 대해 진심어린 후기를 남겨주는 것에 새삼 보람을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꾸준히 매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역 문화유산 교육 역시 예정돼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상암동 일본군 관사와 같은 네거티브 문화를 바로 알고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교육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문화유산을 둘러볼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 VR이나 AI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문화재의 가치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업계에서 저희가 강사님에게 드리는 인건비는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신경 쓰는 것이죠. 사회적기업 1세대라는 소명을 안고 꾸준히 그 가치를 이어 나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MOEL New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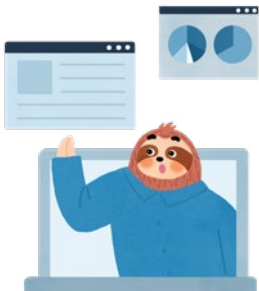
영세·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근로제 활용을
연장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하여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제도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라면서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

고용서비스에 대한 MZ세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17일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발언과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실제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답게 워크넷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MZ세대는 온라인 서비스에 굉장히 친숙한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세대에 맞추어 디지털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MZ세대,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 전문가, 학계 전문가가 다 함께 모여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청년에 맞는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청년들의 건의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연말에 발표할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가칭)에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 방안 등을 담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의를 발족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11월 9일,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활동하게 됩니다. 주요 조선 5사의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학계와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고용부, 산업부, 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 경남도, 전남도)도 참여하여 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 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 우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권기섭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실천해야 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하여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협력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 일경험 등 고용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கே이트 벤켄(Kate Behncken)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권기섭 차관은 최근의 한국 노동시장에서 채용 경향이 수시, 경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청년들이 일경험 참여 기회 확대를 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도입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하여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கே이트 벤켄 부사장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고용노동부와 일경험 프로그램 협력이 한국 청년과 기업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협업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협업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파트너사 네트워크를 토대로 2023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청년 등에게 프로젝트, 인턴십 유형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제공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School'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고용노동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업의 모범 사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일경험 활성화는 기업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글로벌 선도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참여를 계기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국내외 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5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 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정보를 연계, 산재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표'를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하여,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앴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권기섭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와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라고 말했고,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6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에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를 확정하고 이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하여 207개 복합쇼핑몰을 선정한 후 불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하여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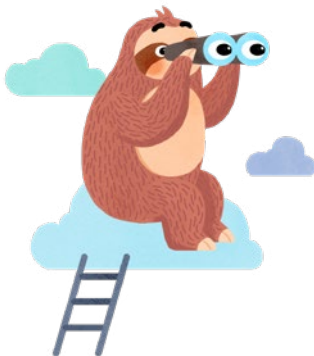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천 5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데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한 기존 방식과 달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전체 대지급금 지급정보 및 체불 관련 사건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사 대상 후보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후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시범조사를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파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시행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임금체불을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8

화물자동차 적재·하역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 127건을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하역 중에 추락하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91건으로 대부분(71.7%)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화물의 형상에 따라 올바르게 적재·하역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기술자료는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 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내용을 국내 사례와 해외 기술기준(영국 표준(BS))을 참조하여 제작했으며 철강업, 운수업 등 화물자동차 다수 사용 업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월부터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물자동차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산업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적재·하역 중에 화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화물 형상에 맞는 적재·하역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에 선정했습니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 2020~2022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대통령상 2개 기업, 국무총리상 2개 기업, 장관상 6개 기업을 노사문화 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세아제강(주)과 대유에이피(주)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주)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고용노동부장관상은 넥센(주), (주)케이티넷, 유한킴벌리(주), (주)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상기업 주요 공적사항

훈격	사업장명	주요 공적사항
대통령상	(주)세아제강	- 노사 간 소통 증대를 위한 '상시적 협의체 기능' 강화 -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수주량 감소에 따른 휴지 설비 근무자에 대해 고용유지 도모 등
	(주)대유에이피	- 매출 급감 시 자발적으로 팀장 이상 간부급 급여 일부를 반납하여 생산직 급여 나눔 시행, 2016년 이후 평균 5.16% 임금 인상과 전 임직원 특별 성과급 지급 등
국무총리상	(주)원익큐엔씨	- 2019년 반도체 하락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 없이 배치전환, 비용절감, 연차 축진 등을 통해 고용유지 노력 등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다양한 노사협의 채널 운영, 공사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열린 경영 실천 -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등 정원 확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50명) 및 정규직 신규 고용 창출(10명)
고용노동부 장관상	(주)넥센	2019년부터 제품 수요 감소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노사 상생의 자세로 극복
	(주)케이티넷	양성평등, 세대, 계층별 갈등요소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차별 없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여 노사 상생문화 지속
	유한킴벌리(주)	대화와 토론을 통한 노경 협업문화 실현, 25년간 무분규 실천 중
	(주)델리에프에스	2010년 중·고등학교 급식 전면 직영화 결정에 따른 경영위기를 사업다각화 및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극복
	신흥글로벌(주)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사우회 임원이 경영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한국자산관리공사	끊임없는 연대와 상생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며 창조와 포용의 노사관계 구현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23.1.1. ~ 2023.12.31.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①, 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복리 후생비	7%	5%	3%	2%	1%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10,58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학창시절에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나 싫었는데

요즘은 뭔가 배우는 게 너어~무 재밌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뭔가 하나씩 새로운 걸 배울수록

왠지 한 살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또 어려워지러 갑시다!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대한민국 연예계 최고의 스타들과 일하는 매니저들의 일상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조여정, 진선규 등 매회 새로운 카메오들의 활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이달에는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속 흥미로운 노동법을 알아봅니다.

“당장 일할 수 있지?” 갑자기 취직한 현주 씨!



‘매니저’라는 직업을 꿈꾸며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현주(주현영 분)는 메쏘드엔터테인먼트에 무작정 이력서를 들고 찾아갑니다. 카페에서 만난 마태오 이사(이서진 분)는 “매니저 일이 호락호락해 보이냐. 부산으로 돌아가라”며 돈을 주고 자리를 뜹니다. 마 이사에게 돈을 돌려주러 사무실을 찾았다가 얼떨결에 매니저로 일할 기회를 잡은 현주.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된 천제인 팀장(곽선영 분)은 “핸드폰을 24시간 켜져 있어야 해. 화장실 갈 때, 씻을 때, 잘 때도 받아야 하고. 야근은 필수. 사생활 보장 못해. 괜찮아?”라고 묻고는 “당장 일할 수 있지?”라며 업무를 줍니다. 현주는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주의 험난한 매니저 생활, 진짜 괜찮을까요?



여기서 잠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죠?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약속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은 필수 항목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되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영화 보지 말고 나갈까? 바람이나 쐬 겐” 어허! 백 실장님 나쁜 손!



영화 ‘첩보’ VIP 시사회에 참석하게 된 현주. 모든 것이 신기한 현주에게 마태오 이사가 인사를 합니다. 현주를 시사회에 초대한 마 이사의 진짜 속셈은, 현주를 플라이엔터 백강호 실장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백 실장은 현주에게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고 있으니 생각 있으면 플라이엔터로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주는 이를 거절하고, 백 실장은 불쾌한 듯 본심을 드러내며 다가갑니다. “내가 마 이사보다 잘해줄게. 어떻게 마 이사 같은 금줄을 잡았지? 안 보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영화 보지 말고 나갈까? 바람이나 쐬 겐~” 하면서 현주의 어깨를 감싸는데요. 이거 성희롱입니다. 백 실장님!



여기서 잠깐!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동영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 이런 거 말고” 중년배우 김수미의 꿈은 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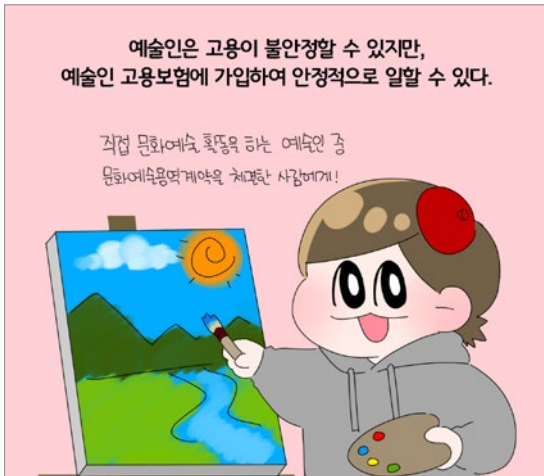
배우 김수미와 서효림은 같은 드라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캐스팅됩니다. 김수미는 “누구 엄마, 누구 시어머니, 욕쟁이, 할머니 이런 역만 하는 거 지겹다. 뜨거운 사랑, 멜로,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고 서효림의 시어머니 역할로 들어온 드라마 주인공 자리를 고사합니다. 그날 저녁 김수미는, 메쏘드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이자 무명 연극배우인 희선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가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매니저인 김종돈 팀장을 만납니다. 김 팀장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루고 싶은 꿈, 실컷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이에 김수미는 “이제 누구에게 이런 꿈 이야기 못할 줄 알았는데 꿈을 물어봐 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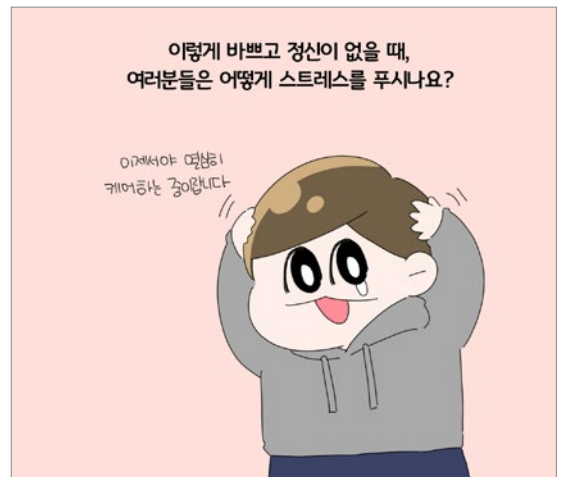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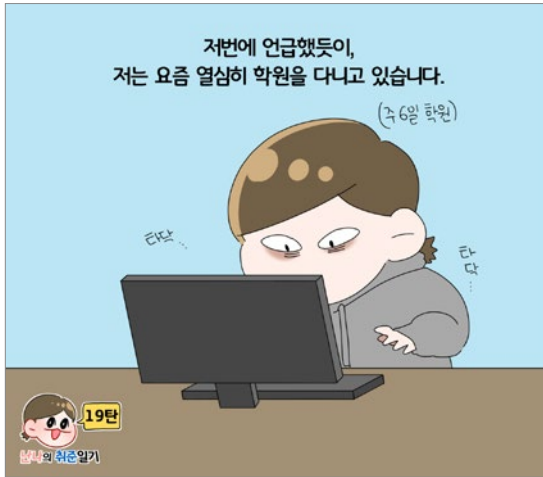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중년의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전국에 31개 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과 중장년을 위한 근로 단계별 맞춤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와 구직자는 장년에 진입하는 일정 시점에서 본인의 생애경력을 점검하고, 인생 후반부에 대한 계획수립과 경력관리, 능력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40세 이상 퇴직(예정)자는 전직스쿨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50세 이상 장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인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금융권 퇴직(예정)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통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년 디지털 트렌드 요약 정리

이제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디지털 트렌드.
올 한 해를 장악한 디지털 키워드를 빠르게 한번 훑아볼까요?



아직 모르는 사람 없지요?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를 빼놓고 디지털 트렌드를 이야기할 수 없지요. 지난 6월, <월간내일>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하여 메타버스에 대해 다뤘던 바 있습니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 아직도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내어 우리 삶에 ‘상상 그 이상의 변화’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일상 속 크고 작은 ‘메타버스’들을 계속 주시해주세요.

버스 토큰? 아니 디지털 토큰!

NFT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은 익숙하지요? 올해 가상화폐와 함께 새롭게 주목받은 용어가 있었으니, 바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코인’이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면, ‘토큰’은 디지털 소유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NFT는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토큰을 말해요. 진위와 소유권 입증에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NFT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하니, 알쏭달쏭 아직 좀 어렵다더라도 용어는 꼭 기억해주세요.

TV 말고도 볼 게 넘 많아

OTT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OTT(Over The Top)는 이제 익숙한 라이프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로 대표되던 OTT 시장은 2022년, 더욱 폭발적인 확장을 했는데요. 쿠팡 플레이에선 토트넘 내한 경기와 드라마 <유니콘>을, 티빙에선 리얼 버라이어티 쇼 <환승연애 2>나 <마녀사냥> 같은 고퀄리티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며 구독자 공략에 성공했죠.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왓챠, 시즌 등의 OTT들도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뉴스레터로

구독 비즈니스



요즘 정기구독 하는 것 한두 가지 정도 있지요? '구독 비즈니스'는 돈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시장경제 형태를 통틀어 말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OTT 역시 대표적인 구독 비즈니스입니다. 과거에는 신문, 잡지 등을 주로 구독했다면 이제는 이메일이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 각종 콘텐츠를 구독합니다. 특히 뉴닉, 어피티, 오픈애즈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선택하는 '뉴스레터' 구독 비즈니스가 눈에 띄게 발전하는 중입니다. 무료 뉴스레터도 많으니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상에 속 들어온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을 뜻하는 AI.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챗봇 서비스부터 레스토랑, 공항 등에서 볼 수 있는 안내로봇, 음성을 인식하는 AI 스피커 등 과거에는 그저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법했던 이 기술이 이제는 일상 속으로 속 들어왔습니다. 실제 사람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인공지능 아이돌도 등장했구요. 예술, 건축 등 인공지능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많은 것들이 대체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감능력, 감성, 도덕성 등 기계가 갖지 못하는 인간다움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네요!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디지털 트윈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 트윈'을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디지털 세상에 '현실과 같은 쌍둥이'를 만든 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가상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현실 세계의 건축물이나 장비, 사물, 기술 등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것이죠.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전 모의시험을 해보거나 여러 시뮬레이션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는 수단 중 하나로도 디지털 트윈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혼자여도 좋고 함께여도 즐거운, 지금 딱!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제안합니다.
12월의 외출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줄 영화와 연극, 전시를 만나보세요.

12월의 약속을 책임지는 외출용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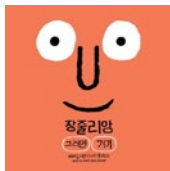
연말을 화려하게 해줄 블록버스터
극장 개봉영화 <아바타: 물의 길>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깼던 영화 <아바타>가 13년 만에 두 번째 에피소드 <아바타: 물의 길>로 돌아옵니다. 아름다운 영상미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만큼, 2편 역시 독보적인 영상미와 더 커진 스케일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라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가정을 이룬 모습, 물의 부족 멧케이나족과 만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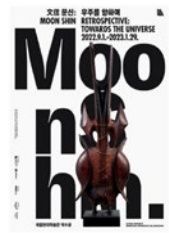
평작 청춘 로맨스의 리메이크
극장 개봉영화 <동감>

다른 시대에서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남녀가 개기일식을 통해 신비로운 소통을 한다는 판타지 로맨스 영화 <동감>이 2022년의 감성을 담아 새로운 배우들과 시대를 바꿔 찾아왔습니다. 김하늘과 유지태가 아닌 여진구, 조이현이 열연을 펼치는데요. 1999년의 용(여진구)과 2022년의 무늬(조이현)가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며 특별한 감정을 쌓아가며 관객을 설레게 할 예정입니다.



남녀노소 누가 봐도 재밌어요
전시 <장 줄리앙: 그러면 거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 장 줄리앙의 첫 번째 회고전, <장 줄리앙: 그러면 거기>는 작가의 독창적이면서도 위트 넘치는 작품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 중인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모든 세대가 쉽게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전시회로 추천합니다.



고즈넉한 덕수궁 산책은 덤
전시 <문신: 우주를 향하여>

조각가로 더 잘 알려진 문신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문신이 여러 조각에 붙었던 제목을 인용한 이번 전시에서는 잠재적 유량자로 평가되는 작가가 근현대미술사에 남긴 발자취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 후 고즈넉한 덕수궁 산책도 빼놓을 수 없겠죠.



추우니까 따뜻한 연극 한 편 어때요?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교내 따돌림, 노부모 부양 등 우리 사회가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한 가족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바라보는 따뜻한 연극입니다. 재일 교포의 삶을 진솔하게 다뤄왔던 정 의신 작가와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을 지닌 구태환 연출이 만났는데요. 상처받은 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연극으로 연말을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사랑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추천!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고백도 못 하고 공공 앓으면서 누군가 마법처럼 나타나 내 사랑을 이뤄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순간! 짝사랑을 이루어주는 요정이 당신 앞에 나타났다면?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는 어느 날 받은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라는 뜻밖의 문자를 시작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요. 프로 방콕러를 위한 추천작들을 모아봤어요. 호빵과 고구마 필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단! 너무 재밌어서 밤을 꼴딱 샅 수도 있으니 시간 배분 잘 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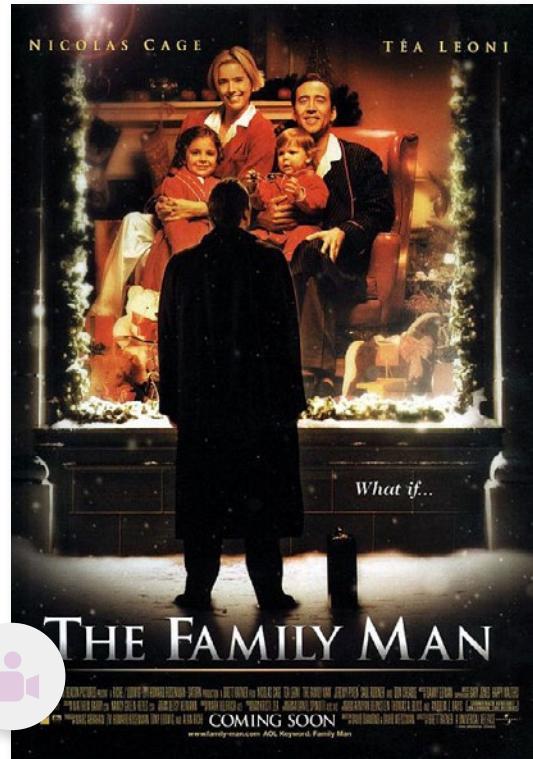
온수매트보다 따끈따끈 집콕용 큐레이션



방구석 파리 여행

넷플릭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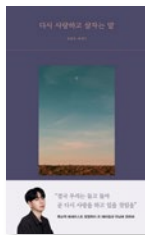
연말연시,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만 집에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엔 여행보다 더 여행 같은 드라마가 있으니까요! 미국인 회사원 에밀리가 갑자기 파리로 파견되며 겪는 우당탕탕 로맨스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가장 대표적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올 12월, 드디어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연말연시에 꼭 봐야하는 명작

영화 <패밀리 맨>

<나홀로 집에>가 크리스마스의 스테디셀러라면, <패밀리 맨>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숨은 명작! 돈과 권력을 모두 천 남성 이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별 볼 일 없는 샐러리맨이 되어버린 평행 우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적응하기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어느새 과거 헤어진 여인과 그 사이에서 꾸린 평범한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면
에세이 <다시 사랑하고 살자는 말>

헤어짐의 추억과 만남의 기다림 속에 있는 모두에게 가닿을 따뜻한 이야기를 장영욱 에세이스트가 펼쳐냈습니다. 헤어짐과 만남 그 어딘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어떤 깊이와 너비인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시 사랑'을 기약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오롯이 들어간 책이죠. 지난 2017년 에세이 <편지할게요> 이후 5년 만의 에세이라 더욱 기대됩니다.



이불 돌돌 감고 만화 보는 날
웹툰 <Ho!>

청각장애인 Ho와 비장애인 원이가 펼치는 따뜻하고 다정한 웹툰입니다. 2015년의 작품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의 '인생 웹툰'에 등장하곤 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나이 차를 극복하는 러브스토리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몽글해집니다. 일본 사이트인 2ch의 '1'이라는 유저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야기를 한국 작가가 각색해 그린 웹툰입니다.



집에서 그림 보러 갈까요?
유튜브 <이연 LEEYEON>

그림을 그리며 멋진 인생 이야기와 힐링까지 전하는 유튜브 채널 <이연 LEEYEON>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마성의 채널입니다. 작가는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단정한 그림과 함께 담백한 목소리로 표현합니다. 메시지가 짧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뛰어나 실용적이기까지 하답니다.



오늘은 책을 읽지 말고 들어요
유튜브 <따뜻한 목소리 현준>

잠 못 드는 밤을 책과 함께 토닥여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 이름처럼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 현준이 편안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준답니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 등 시중에 출간된 다양한 신작뿐만 아니라 고전들까지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만의 휴식이 필요한 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도 읽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익히는 당신. 말투는 신경 쓰고 있나요?

“저 사람과 일하면 왜 기분이 좋지?” 호감을 전하는 말의 기술

메라비언의 법칙

작은 회의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까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이 발표한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디랭귀지가 55%, 목소리가 38%, 말의 내용은 7% 작용한다고 합니다. 즉 대화를 할 때, 말 그 자체보다 몸짓, 눈빛, 목소리 등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말을 할 때 표정과 눈빛, 제스처에 좀 더 신경을 써보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밝은 미소, 시선 맞추기, 고개를 끄덕이는 리액션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하듯이 말하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아시지요? 칭찬의 효과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습관이 되어있지 않으면 칭찬하는 게 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땐 제3자가 말한 것을 전하듯이 말해보세요. “김대리는 참 성실하네요!”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게 좀 쑥스럽다면 “김대리가 참 성실하다고 부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듯이 말하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케팅 용어에서는 ‘주워듣기 효과’라고 합니다. 사내 회의나 외부 미팅 등 조금 딱딱한 자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브랜드 제품 직접 써보니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보세요.

긍정적인 어휘 사용하기

호감을 주는 말투와 함께 비교감을 전하는 말투도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그래봐야”, “고작” 등 부정적인 말투는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투를 많이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나도 그 부정적인 감정에 전이되고 금세 기운이 빠지는 경험, 누구나 있지 않나요? 같은 의미지만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안 되는데!”보다는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하면 좋겠는데!” 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해 보세요.

말하기보다 듣기

많은 사람이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실천은 쉽지가 않지요. 동료가 “어제 출장 다녀오느라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뭘 그 정도 가 지고 그래. 나는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면서 내 이야기를 더 길게 풀어놓았던 경험, 이 비슷한 경우가 누구나 있지요? 사실 상대방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물어봐주기를 바랐을 텐데 말이죠. 호감을 전하는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기에 익숙해지려면 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조금씩,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나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분 좋은 라벨 효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라벨 효과’는 말 그대로 ‘라벨’을 붙이듯이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라벨이 아니라 긍정적인 라벨을 붙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너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라고 말했다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료들과 좀더 편안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면 라벨 효과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차장님,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리는 매사에 디테일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 같아. 덕분에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라벨 효과로 더욱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보세요.

연말연시 인사에 활용해보세요!

올 연말에는, 이번 지면에 소개한 ‘호감을 전하는 말의 기술’을 활용해 인사를 해보세요. 소소한 차이일 뿐이지만, 스미듯이 기분 좋은 느낌이 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을 바꾸는 비밀은 일상의 작은 변화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소개

올해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콘텐츠 TOP3

고용노동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정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콘텐츠가 가장 반응이 뜨거웠을까요? TOP3를 공개합니다.

(11월 20일 기준)



조회수 21만~34만회

2022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상반기+하반기)

가장 많은 사람이 봤다는 것은 가장 필요한 콘텐츠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2022 NEW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상반기)’이 34만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화면을 통해 차근차근 알려주는 영상이라 정말 유용하답니다. 새롭게 업로드된 ‘2022년 하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바로 그 뒤를 이려 조회수 21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 상반기



▲ 하반기

고용노동부 유튜브

아직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 좋아요와 👉 구독신청, 🔔 알림신청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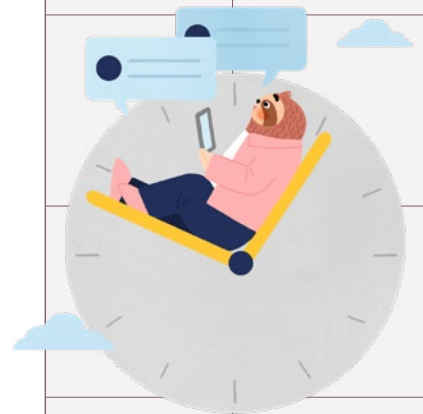




조회수 11만회

3+3 부모육아휴직제

이 땅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하는 콘텐츠! 하나도 둘도 아닌,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지, 또 업그레이드된 혜택부터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모의 계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조회수 10만회

화물차주도 고용보험 가입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예술인, 특수고용직에서 플랫폼종사자 2개 업종(퀵서비스 및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까지 확대된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주를 만났습니다. 화물차주에게 직접 듣는 고용보험 가입 그 후의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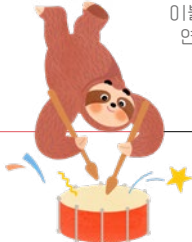
실내 온도는 1도 낮추고!
옷은 1개 더 꺼입고!
마이너스 플러스 1 챌린지



춡다고 무조건 실내 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이제 STOP!
실내 온도를 1도 높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10%나 많아진답니다.
실내 온도를 높이는 대신, 내 몸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양말을 신거나 실내복을 입으면 체온을 2도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위해, 건강을 위해! 실내 온도는 1도 낮추고! 옷은 1개 더 꺼입고!
착한 챌린지로 12월을 마무리해볼까요?

12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아무리 추워도 보일러 적정온도로 맞춰요	3
4	5 	6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20도!	7 대설 	8	9	10 미리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쓰면 마음도 따뜻!
11 양말신고 옷 개입으면 면역력 쑥쑥~	12	13	14 	15 실내 온도 높이기 전에 실내복 입었는지 체크!	16	17
18	19	20	21 동지 긴긴밤 [따뜻한 팔죽으로 온기를 느껴요~]	22	23	24 홈파티 패션에 포근한 양말 매치해주시기!
25 크리스마스 	26	27	28 	29 이불 돌돌 감고 연말 시상식 보기	30	3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12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12월 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일스타그램

이번달
늘봄이 이야기

내일이 만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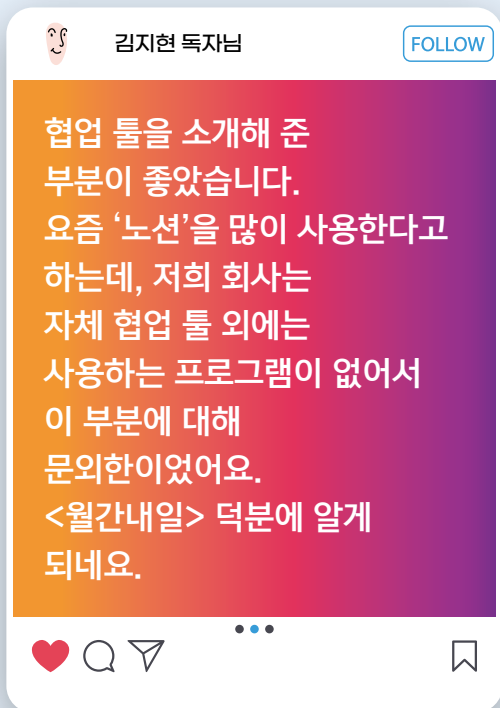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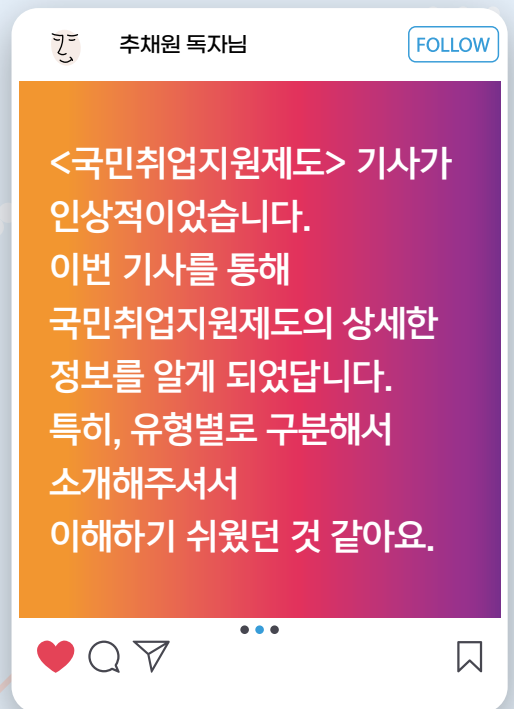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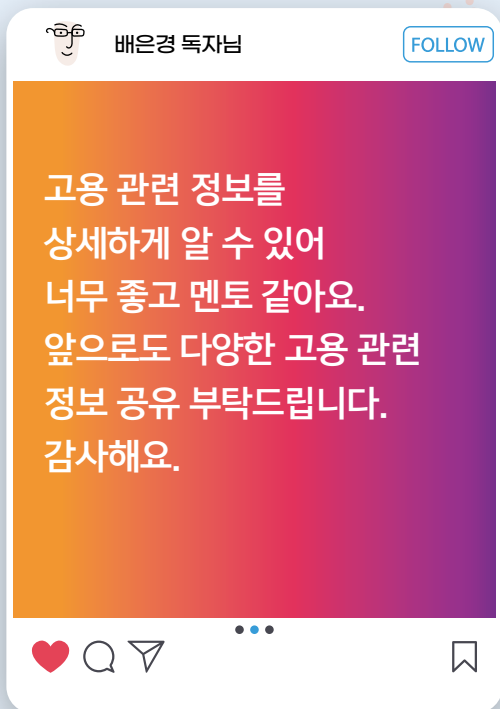
알아두자고용

주말에 뭐할래

REVIEW



12월호 그린 리추얼
‘마이너스 플러스 1 챌린지’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2022년 <월간내일>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실
독자님들의 목소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월간내일> 이벤트

안들봄 찾기?

??

12월호에 '안 들어간' 늘봄이를 찾아주세요!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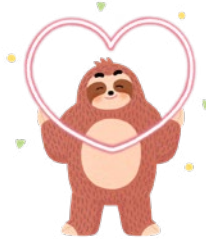
②



③



④



⑤



⑥



웹진에 접속한 뒤 <EVENT - 안들봄 찾기>를 눌러 정답을 남겨주세요!

<월간내일>을 읽은 소감, 기대평 등도 남겨주면 당첨 확률이 Up! Up!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맛있는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12월 18일(일)까지 / 당첨자발표: 2023년 1월호 지면 및 개별 연락

당첨자: 20명 / 이벤트 상품: 디저트 쿠폰

11월 이벤트 당첨자(*당첨자는 가나다 순)

강성희(6293) 강운규(5155) 구희은(9604) 김동석(6335) 김민경(4723) 김선자(4747) 김승해(0042)
 김은경(9135) 김호기(4794) 박운순(8787) 배영미(4030) 백영옥(2717) 양원석(1304) 이수인(0382)
 이정숙(2413) 이현주(7608) 정승원(5596) 조영민(6499) 최영수(8709) 한울(0613)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22년 올해 <월간내일>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23년에도 국민에게 항상 마음과 귀를 열고 있는
<월간내일>이 되겠습니다.



참여방법

아래 QR코드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기간	2022년 12월 1일(목)~12월 31일(토)
이벤트 선물	커피 쿠폰 1매 증정(20명 추첨)
당첨자 발표	조사 종료 후 당첨자에 한해 개별 연락



**<월간내일>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디지털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월간내일>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종이 매거진의 부수가 줄어듭니다.
대신 **한층 업그레이드된 웹진**으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이니
<월간내일>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주세요!

